

고대 그리스철학 I : 자연철학자들과 플라톤

1. 묘하게도 천재들이 속출하다.

기원전 5, 6 세기 경에 위대한 사상가들이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엄청 출현하지요. 석가, 공자, 노자로 대표되는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들, 탈레스를 비롯해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이르기까지의 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그들입니다. 혹자는 외계인이 한꺼번에 지구 곳곳에 등장한 것 아니냐 하는 우스개 비슷한 말을 할 정도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하필이면 그 시기에 막강한 사상가들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실크 로드는 기원전 1 세기 경에 열렸다고 하니 글썽, 동서양 간에 사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라 쉽게 단정할 수도 없네요.

아무튼 이 시기 서양에서는 사유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아르케(arche)** 내지는 **스토이케이온(stoicheion)**에 관한 사유가 싹튼 것입니다. 아르케는 발단(發端) 또는 발단의 계기가 되는 근원(根源)을 지칭합니다. 혹은 사물의 궁극적인 구성 성분인 요소(要素)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스토이케이온은 원소(元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를 사물의 궁극적인 구성 성분인 요소라고 할 경우에는 스토이케이온과 별달리 차이가 없겠습니다.

아르케건 스토이케이온이건 간에 이에 관한 담론의 시작은 곧 서양 철학의 발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르케 혹은 스토이케이온에 대한 담론은 흔히 자연철학자라 불리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탈레스(640-550), 아낙시만드로스(610-540), 아낙시메네스(540 년 경에 성인), 피타고라스(580-500), 헤라클레이토스(530-470), 파르메니데스(520-440), 제논(490-430), 엠페도클레스(444 년 경에 활약), 아낙사고라스(440 년 경에 활약), 데모크리토스(460-360) 등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참고, 소크라테스 469-399, 플라톤 427-347, 아리스토텔레스 384-322.)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최초의 철학자들 대부분은 모든 것들의 질료적 아르케들만이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부터(ex hou) 있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최초로 생겨나서 마침내 소멸되어 그것으로(eis ho) [되돌아가는데], 그것의 상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영속하므로, 그것을 그들은 있는 것들의 스토이케이온이자 아르케라고 말하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983b7-12)

제 2 강 고대 그리스철학 II : 자연철학자들 / 플라톤

§. 아르케에 관한 이론들 (1 강 계속)

6)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아르케

- 존재(eon 또는 on)
- cf. 플라톤이 '일자'(hen)라고 함.
- 하나이고, 변하지 않으며, 운동하지 않는다.
- 일자(一者):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

7) 엠페도클레스가 말하는 아르케

- 사원소(흙, 물, 공기, 불), 그리고 결합과 분리의 원리인 '사랑과 미움'
- 동양의 오행과 유사함.

8) 아낙사고라스가 말하는 아르케

- 씨앗들(spermata)
- 운동과 생성의 원인인 지성(nous)
- 그리고 섞인 것(meigma)

9) 데모크리스토스가 말하는 아르케

- 원자들(atoma):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것 / a toma(=자르다)

cf.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대결

- 완전한 무상(無常)과 완전한 항상(恒常)

§. 플라톤의 참 존재인 이데아와 거짓 존재인 세상

§. 강의 메모

- 플라톤의 일자(一者) 및 수(數) 개념 수용: 이데아의 다수 / 불변의 본질
- 이데아의 원뜻은 가장 좋은 것을 뜻함.
- 이데아는 하나이고 불변이다.
-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속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이상주의 또는 이념주의

1. 참으로 존재하는 것과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의 구분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많은 이분법이 나타납니다. 혼과 몸, 이성(지성)과 감각, 가시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 조화로운 것과 영글어진 것 등의 이분법을 들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저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근원적인 이분법이 있겠는데, 그것은 바로 참으로 존재하는 것과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간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먼저 다음 것들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존재하는 것'(to on aei)이되 생성(genesis)을 갖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언제나 생성되는 것'(to gignomenon aei)이되 결코 존재(실재)하지는 않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입니다. 분명히 앞의 것은 '합리적 설명(logos)과 함께 하는 지성에 의한 앎(이해)'(noesis meta logou)에 의해 포착되는 것으로서 '언제나 같은 상태로 있는'(aei kata tauta) 것인 반면에, 뒤의 것은 '비이성적인 감각'(aisthesis alogos)과 함께 하는 의견(판단: doxa)의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서, 생성·소멸되는 것이요, 결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 플라톤, 『티마이오스』 27d.-28a.

- 참으로 존재하는 것 vs.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 언제나 존재하는 것 vs. 언제나 생성되는 것
- 지성적 앎에 포착되는 것 vs. 의견(속견)의 대상인 것
- 합리적 설명과 함께 하는 지성 vs. 비이성적인 감각과 함께 하는 의견(속견)

2. 최상의 이념(이상적 존재): 선의 이데아

- 에피스테메(episteme): 지성에 의한 불변의 지식 / 플라톤의 지식론(인식론)
- episteme ----- dianoia ----- doxa: 수의 이데아는 따로 있지 않고 매개해준다.
-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피스테메, 불변의 법칙을 안다는 것이 중요함.

* 선의 이데아: 이데아 중의 이데아

- 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사상과 결합됨.

cf. 칸트의 자연의 숭고미

- 왜소해지고 자연의 거대한 힘 느낄 때 숭고미를 느낀다. 숭고미를 느낄 때 그 영혼이 숭고하다.
- 숭고미를 느낄 줄 아는 인간에 대한 찬미

